

토론: 국가의 재발견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020. 6. 24.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SNU responds to COVID-19

"국가의 재발견"



- 코로나19가 시민사회의 마음에 남긴 흔적
- ■시민들의 유일한 '방패'로서의 국가
 - 방역, 경제, 세계질서
 - 준전시상황과 다르지 않아
- 경험적 근거와 규범적 평가들

Evidences: Background



- ■4.15 총선거
 - 높은 투표율과 여당의 압승
 - 개인주의/시장주의적 정치세력의 소멸
 - 단순한 보수의 "막말"이 패인은 아니었음
- 한국적 국가주의의 전통
 - 보수적 국가주의와 진보적 국가주의
 -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vidence: 법질서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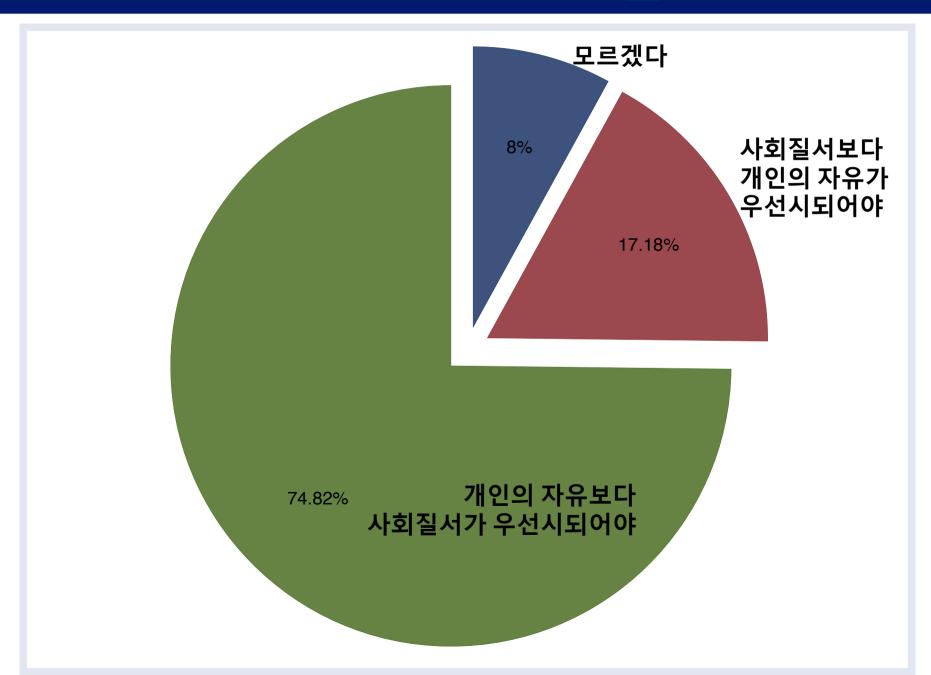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문제 집단들을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자료:KGSS(2016), <시사IN>·KBS 사회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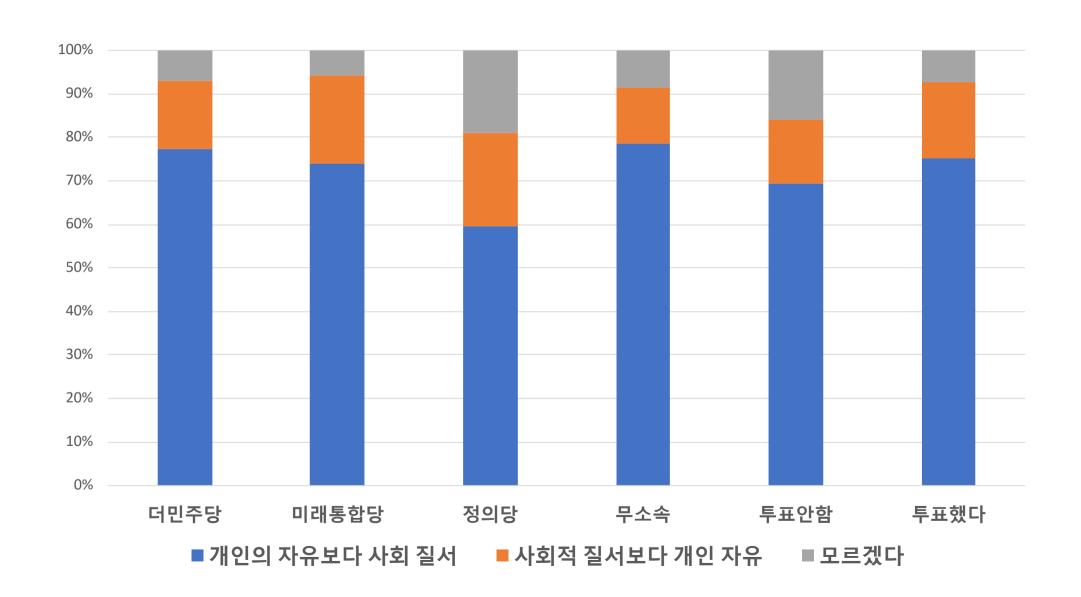
Evidence: 개인자유 vs 사회질서





총선 지지후보 정당별 의견





급히 맺으며



- 코로나와의 효율적 전쟁을 치를 주체로서 국가
- ■적어도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된 듯
- ■국민적 합의와 구분되는 규범적 숙려의 시간
 - 개인적 자유, 시민적 가치들에 대한 고민?
 -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역설
- "뉴노멀"은 민주주의의 변화까지 포괄하는가?
 - 시민사회의 역할
 - 국가책임성의 문제